

가부장제로부터의 탈주와 희망의 광장

—이청준의 「겨울광장」을 중심으로

최 언 희*

요약

본고에서는 이청준의 단편소설 「겨울광장」에서 여성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인공을 통해 나타나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이청준의 비판적 의식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소설 제목의 함의를 고찰하려고 한다. 70년대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보여주었다. 70년대 말에 발표된 「겨울광장」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병의 증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19 로 잠시 민주화의 가능성을 보였던 광장은 5.16군사쿠데타 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 개인권력의 장으로 봉쇄된다. 당시의 국가는 근 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에게 고통을 인내할 것을 강요한다. 이청준 의 소설 「겨울광장」은 이러한 강압적인 권력체제에 대해 고발하고 억압 당한 대중 들이 다시 자유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광장을 되찾는 바램을 적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겨울광장」이라는 제목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이며 주인공이 광장에서 스스로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이청준, 광장, 들뢰즈, 여성, 민중

목차

1. 서론
2. 폭력으로 유지되는 가부장제
3. 현실부정과 자기세계 만들기
4. 삶과 희망, 그리고“광장”
5. 결론

1. 서론

1965년 「퇴원」으로 문단에 등단한 이후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꾸준히 ‘진술’, ‘자유’, ‘구원’ 등 문체에 천착했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체들을 정신이상을 앓고 있는 인물로 다루는 것이 이청준의 소설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등단작인 1965년의 「퇴원」으로부터 「씩어지지 않은 자서전」(1969),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소문의 벽」(1971), 「황홀한 실종」(1976), 「겨울광장」(1979) 등 소설의 주인공이 정신이상을 앓고 있지만 「퇴원」을 비롯한 4편의 주인공이 남성인데 반해 「겨울광장」은 여성 주인공의 정신이상을 다루고 있다. 「겨울광장」 이전의 ‘정신 이상’을 다룬 소설에서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 지식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정신 이상’을 다룬 소설인물들의 특성을 유년시절의 불안과 이청준 개인의 체험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겨울광장」의 주인공은 여성이며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1970년대라는 사회 역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망을 해명하고 작가의식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는 기존연구가 소홀히 한 점이기도 하다.

「겨울광장」은 1979년 문학사상 2월호에 발표된 이청준의 단편소설이다. 이듬 해인 1980년에는 단행본 『살아있는 늪』(홍성사, 1980)에 수록되

었고 이 후에도 단행본 『겨울광장』(한겨레, 1987)과 『소문의 벽』(열림원, 1998)에 수록되었지만 이청준의 다른 작품에 비해 논의나 연구가 미비하다. 우찬제는¹⁾ 『겨울광장』의 완행택의 불안을 정신분석적 차원으로 보며 이 불안은 무제한의 향락을 추구하는 大他者의 횡포로 인한 것이라 한다. 광장사람들은 자아를 잃은 완행택의 광기를 삶을 연장케 하는 꿈으로 받아들이며 이로부터 완행택과 광장사람들의 관계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형식을 환기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청준의 소설은 개인의 자유로운 꿈을 억압하는 사회라는 대타자의 폭력성을 불안에 시달리는 인물들을 통해 암시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현실이라는 광장에서 느끼는 불안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강명규²⁾는 작품 속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처의 원인과 그 대응 방식을 프로이트의 자기방어기제로 분석하여 작가의 의식세계를 탐구한다. 『겨울광장』의 완행택은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자기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투사’, ‘전치’,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기존재를 상상속의 딸에게 전가시키고 그 딸을 찾는 행위를 통해 자기존재를 찾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이진경³⁾은 주변적 지향을 가진 완행택이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억압받고, 배제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이 소설에서 담론의 지배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적 성향을 지닌 인물인 주인공이 권력의 우위성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으로 본다. 정현숙의 비평문⁴⁾에서는 『겨울광장』을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라캉의 상징계와 실재계의 정신분석학으로 풀어냈다. 주인공 완행택과 광장사람들을 양 축으로 보고 이 관계를 작가와 독자의 관

1) 우찬제, 『이청준(李清俊) 소설(小說)에 나타난 불안(不安)의식(意識)연구』, 『語文研究』 3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89-212면.

2) 강명규, 『이청준 소설 속 인물의 방어기제 연구: 『조만득 씨』, 『겨울광장』, 『황홀한 실종』, 『가면의 꿈』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이진경,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미시권력의 양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정현숙, 『의미화의 과정: 부재에 의한 욕망의 담화』, 『오늘의 문예비평』, 지평, 1992, 110-126면.

계로 연상시켜 『겨울광장』은 작가의 글쓰기 행위의 정체와 독자의 글읽기 행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기존연구의 양적인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겨울광장』에 대한 해석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기존연구를 일부분 수용하면서 70년대라는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정신이상을 다룬 이청준의 소설의 연장선에서 이 소설의 의미를 확장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이청준의 소설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계되는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신 이상’을 다룬 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신분석학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⁵⁾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는 김현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현은 이청준의 초기 소설 속 인물들이 일상적이지 못한 세계에 끼어 버린 자들의 일상에의 회귀욕망에 의거해 있으며 그러한 특성은 “유년시절에 형성된 기본적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정신적 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재선은 정신이상 현상 자체에 주목한다. 이재선은 이청준 소설의 정신병리 현상의 뿌리가 가족 관계나 유년기 및 과거의 불안 경험에서 연유하나 이러한 불안은 또 사회적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불안과 사회적인 연관은 이승준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준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청준 소설의 정신이상을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는 신경증을 다룬 소설들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현실에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신증을 다룬 소설들은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며 정신증의 인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두 증상을 다룬 소설은 모두 정신병리학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 김현, 『장인의 고뇌』,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369-380면.

이재선, 『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30-242면.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17』, 2002, 347-367면.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 모습과 현대인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내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를 보자면 김우영의 학위논문 『이청준 문학의 언어인식 연구』⁶⁾에서는 이청준의 언어 및 문학을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상황의 맥락으로 검토하면서 이청준의 문학 언어와 글쓰기의 특징을 작가 의식과의 관련성으로 규명하였다. 김우영은 논문은 그간 ‘4.19세대’ 혹은 ‘관념적 작가’라는 해석으로 다소 편의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청준에 대한 해석 지평을 넓히고 기법적 측면에서 가볍게 논의되어 온 이청준 작품의 추리소설적 구조와 알레고리 구성을 근본적인 방법론으로 독해함으로써 이청준 작품의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청준의 소설에서 알레고리를 통해 부정적인 전망을 압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청준의 소설은 대체적으로 남성 주인공들의 담론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겨울광장』의 여성서사에 주목하여 이청준의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알아보고 나아가 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도출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주인공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청준의 비판적인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으로 주인공의 환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주인공은 가부장제에 순응하려는 주체와 그 제도에 저항하고 탈주를 감행하는 주체가 공존하는 이중적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현실에서의 주인공은 유목적 주체로서의 욕망과 부단히 충돌하고 이러한 욕망은 탈주의 욕망을 생성하게 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광장이 어떤 공간이며 제목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6) 김우영, 『이청준 문학의 언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 폭력으로 유지되는 가부장제

1970년대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한 개인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은 억압적인 외적 세계라는 것을 구체적이고도 명료하게 밝히면서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⁷⁾ 이 시기 작품 중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인물의 증상으로 정신이상을 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1969년의 『쓰여지지 않은 자서전』, 1971년의 『소문의 벽』, 그리고 1976년의 『황홀한 실종』이 있다. 이 세 소설은 모두 권력이 야기하는 공포와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는 무력한 지식인상을 묘사함에 있어 그들의 실존적인 고통을 정신적질병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정신적질병은 억압과 관련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억압을 주는 대상이 명확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다. 가령, 그것은 “전짓불”을 들고 있는 군인, 환상 속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신문관’이라는 추상적인 형상으로만 등장한다. 여기서 이청준에게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권력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 즉 시선 권력을 지탱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⁸⁾ 하지만 1979년에 발표된 『겨울광장』도 역시 주인공이 정신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권력

7) 이청준의 데뷔로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소설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일방적인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 혹은 피할 길 없는 자기소모와 비극적인 몰락 등이다. 장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의 주요 속성으로 낭만적 환멸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설의 작중인물은 현실에 충분히 소속되지도 못하고 또 자기세계에도 고립적으로 빠져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짙은 회오와 환멸, 그리고 쓰라린 심경만을 드러내며 존재를 억압하는 현실도 극히 막연히 분위기로만 파악된다. 하지만 1970년대에 와서는 외적 세계의 억압적 요인이 막연히 인간 일반의 운명론적 조건에 기초해 있기보다는 특수한 한국적 정황 속의 정치 사회적 변혁에 그 맥을 대고 있다. 한상규, 『(병신과 머저리)에서 <인간인>까지 문학적 연대기: 멈추지 않는 자유의 현상학』, 『작가세계』, 세계사, 1992.08, 29-36면.

8) 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 『꺼져질 수 없는 자서전』과 『소문의 벽』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바탕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0권 0호, 2016.10, 362면(355-401면).

의 주체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소설의 주인공이 여자라는 점에서 그 권력의 대상이 남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타 소설과 달리 주인공을 여자로 설정한 것도 의도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그 대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소설에서는 억압을 행사하는 권력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설의 주인공인 완행택은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해 왔고 아들이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된 날부터 정신이상을 보이면서 광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딸을 찾게 된다. 이청준의 여러 소설과 마찬가지로 『겨울광장』도 추리소설 형식을 갖고 있다. 먼저 이 소설의 주인공 완행택이 광장에서 그 곳 사람들에게 진술한 사연에서 본다면 그녀의 딸은 집에서 세 번 탈출하려고 한다. 딸이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 에피소드는 대개 아래와 같다.

1. 의붓아버지가 마음에도 없는 사내와 결혼할 것을 강요한 것⁹⁾
2. 매질을 하는 남편이 시앗을 집으로 데려와 시중을 들게 하고 그 시앗으로부터 매질을 당한 것
3. 매질을 하던 아버(남편)가 다시 나를 찾아온 것

완행택의 진술은 과거에 두 남성이 ‘딸’(완행택 자신)의 방에 숨어들었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총각은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하고 100까지

9) 완행택의 진술에 의하면 완행택의 딸은 자신이 두 번째 남성을 원했음에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무조건 관계를 가진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의붓아버지의 관념으로 딸의 사랑은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60,70년대는 ‘건진성’을 강조하는 풍속 속에 문화이데올로기 장치가 곳곳에 작동되는 시기였다. 풍속에 관한 통제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강화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감성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저해하는 위험한 정념으로 단속된다. 여성의 연애, 결혼, 부부관계 등 사적 영역의 감성은 규범화된 관계의 영역으로 다스려졌다. -송인화 『196,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30권, 2013, 385-415면.

샘을 세기로 하는데 딸이 정작 맘에 둔 두 번째 남성인 천돌이는 77, 78 정도를 세고 도중에 뛰쳐나간다. 그녀는 맘에 두고있던 천돌이에게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를 품고자 첫 번째 남성에게 몸을 내주었지만 정작 맘에 둔 천돌이는 도중에 도망친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맘에 둔 남자에게 선뜻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일 이후에 일어난다. 반드시 첫 번째 총각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붓아버지의 성화는 그녀로 하여금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이참엔 옆에서 샘을 세고 기다리는 놈이 없이 새끼만 한번 차분히 배 위로 올려주고 싶었던갑더라. 근디 아배가 탈이었제. 아배 죽어도 제 배를 기어오른 놈한테 시집을 가라고 년을 못살게 억박질러뒀거든. 놈한테 시집을 안 가면 년을 꽤 죽이거나 말려 죽일 것맹이로 말이다.¹⁰⁾(340)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꽤 죽이거나 말려 죽일 것” 처럼 억박지른다. 이처럼 딸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처음 관계를 가진 사내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의붓아버지의 형상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에리히 프롬은 ‘권위주의적’ 남성성은 가부장제의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유형의 특징은 엄격한 양육, 가족을 지배하는 아버지, 성적 억압, 보수적 도덕¹¹⁾이라고 한다. 소설에서의 의붓아버지는 보수적인 도덕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며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결혼시킨다. 즉 의붓아버지의 폭력은 가부장제의 유지와 관련된다.

딸과 결혼한 남성도 폭력으로 딸을 억압한다. 첫 번째 남성과 G시로

10) 이 글에 인용된 『겨울광장』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문 중에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이청준, 『겨울광장』, 『눈길』, 이청준 전집 13, 문학과 지성사, 2012, 333-371면.

11) R.W.코넬, 안상욱, 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44-45면.

나가 살림을 차리게 된 딸은 폭력을 행사하는 부권으로부터 멀어져 폭력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딸이 결혼한 남성 역시 폭력 적일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고 무책임하다. 영업택시회사 운전수가 된 이 남성은 밤만 되면 난폭스러운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에는 그날 밤 절대 자의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원망과 딸이 은근히 천돌이를 바라다 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결합되었다. 머리를 잡아 끌고 온 몸이 시퍼렇도록 멍이 드는 난폭스러운 매질로 인해 딸은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 게 되며 기가 죽어 지내기 시작한다. 사실 그녀는 마음에 둔 총각과의 관계를 무산시킨 지금의 사내에 대해 원망과 반발심을 품고 있었지만 매질로 인해 더 이상 그러한 본심을 표현할 수 없다. 택시운전수라는 직업으로 밤낮 질서가 없이 지내던 남편은 어느 해 봄부터 부쩍 외박이 늘어나 다가 끝내는 어느 시골 읍 다방의 여자를 집에 들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적이게도 집에서 “살 만하게” 느끼게 된 것이 남편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혼외정사 때문이었다. 남편의 혼외정사로 딸은 더 이상 매질을 당하지 않게 된다. 혼외정사는 가정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딸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이 택시 운전사, 즉 돈을 벌기 시작해서부터 다. 사내는 혼외정사의 대상으로 계급이 낮은 다방여자를 택하고 딸에게도 그 관계를 인정하며 심지어 집에까지 데려온다. 딸은 사내가 밖에서 외박할 때도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방여자를 집에 들여온 것은 딸이 “남정 있는 여자가 그 씨앗에 관한 일을 사내 앞에서 터놓고 입에 올린 잘못”을 하고 난 뒤였다. 딸은 견딜 수 없어 이 견고한 남성권력(결혼제도)을 거부하고 탈출을 꿈꾼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탈출에 대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딸은 탈출에 대한 욕망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딸은 의붓아버지의 고집으로 마음에도 없는 남성과 결혼하고 그 남성의 매질과 혼외정사에도 아는 체 할 수 없 이 기죽은 듯 살아야 했다. 딸의 결혼과 결혼생활은 단지 남성 뿐이 아니

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과거에 두 남성이 딸의 방에 숨어들어 딸을 강간하려 했음에도 딸의 행실을 의심하고 남편의 외도에 있어서도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동네 사람들이다.

하다 보니 여자는 그것도 사람으로는 못할 노릇이었다. 어떻게 기미를 알았던지, 동정은켜녕 오히려 자기 쪽에만 손가락질을 해대는 이웃 눈길도 못 견딜 노릇이었고, 년놈이 밤새도록 터놓고 히히덕거리는 건넌방 기척도 제정신 지닌 사람으로는 못 참아낼 노릇이었다.(349)

완행택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이웃들은 남편의 외도를 완행택의 잘못으로 여기고 힐난한다.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숨겨야만 했고 마을에서의 소문이 무서워 첫 번째 사내와 결혼한 것, 그리고 남편의 외도마저 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서 가부장제에서의 지배권력이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화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완행택의 진술에서의 딸을 통해 가부장제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보여줌과 함께 가부장제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체제의 모순과 여성의 억압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가부장제’, patriarchy는 문자로 아버지의 지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배’를 넘어, 남편, 남자 상사, 대다수 사회 기구와 정체경제 영역에서 군림하는 남성의 지배를 말한다.¹²⁾ 결정적으로 완행택을 미치게 한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완행택의 진술에서의 딸의 사연은 모두 완행택 자신이 겪어온 일들이었다. 완행택은 의붓아버지, 사내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해왔고 아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완행택을 좀 심하게 끌어당겨 세워 “몸이 뒤로 휩 젖혀지면서” “머리가 돌아버린”다. 완행택은 의붓아버지와 사내로부터 당했던 폭력성을 아들에게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깨닫는 것은 ‘남자’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이다. 소설은 가부

12) 마리아 미즈 지음,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109면.

장제의 폭력성을 보여주면서 그 폭력성이 문화적으로 남성들끼리 습득하고 재생산¹³⁾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현실부정과 자기세계 만들기

『겨울광장』에서 완행택의 이야기는 “어느 날 한밤중에 동네 총각 두 놈이 딸년 방엘 숨어 들어왔던 갑더라”로 시작한다. 1975년 『변사와 연극』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연극의 이야기는 『겨울광장』의 서사와 중첩되며 이야기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겨울광장』에서의 완행택과 『변사와 연극』에서의 누이는 모두 강간을 당하고 계모 혹은 의붓아버리로부터 강제결혼을 당한다. 『변사와 연극』에서는 비록 예정대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이는 구원자 역할을 담당할 오빠를 기다리며 구원을 바란다. 즉 『변사와 연극』에서는 구원자라는 존재가 있고 주인공이 타인으로부터 구원될 것을 바라는 반면, 『겨울광장』의 완행택에게는 애초부터 구원을 약속한 오빠라는 존재가 없다. 하지만 오빠라는 구원자가 없다 하여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겨울광장』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구원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아직 자세한 내막을 알 순 없지만 완행택은 여태껏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 혼자 머릿속 딸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완행택이 머릿속에서 지어낸 딸에다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 엮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 되면 그 첫번째 집을 나간 딸아이의 이야기도 완행택 자신

13) ‘남성’이 생물학적이란 ‘남성성’은 문화적이다. 남성성은 한 남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며, 한 사회나 그가 속한 문화 내에서 남성들끼리 동화되어 유사한 성질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방식으로 재생산하도록 학습된 사회적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존 베이넌, 임인숙, 김미영 옮김,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14-19면.

의 이야기였고, 두번째 소박을 맞고 쫓겨난 딸아이의 이야기도 분명한 완행택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

완행택에게 결국 그녀의 진짜 딸이 없었다. 있는 것은 다만 자신의 소재와 실체를 송두리째 내주다시피 한 완행택의 소망과 망상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완행택은 그 망상의 딸들로 하여 정작 자신의 소재와 실체를 모두 잃어버리고 있었다. ……(359-360)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완행택은 광장에서 집 나간 딸을 찾지만 딸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찾고 있는 딸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완행택이 찾고 있는 딸은 환상¹⁴⁾이다. 존재하지 않는 ‘딸’은 과거의 완행택이며 그의 ‘딸’은 환상 속에 존재한다. 완행택이 말하는 딸을 환상 속의 ‘나’라고 하고, 그 딸을 찾는 완행택을 현실속의 ‘나’로 볼 때, 현실과 환상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게 된다. 현실 속의 ‘나’를 띠의 안쪽이라고 했을 때 환상 속의 ‘나’는 띠의 바깥 쪽으로 이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으므로 딸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환상 속의 ‘딸’과 현실 속의 ‘나’는 모두가 이중적인 주체성을 지닌 완행택이다. 이 점에서 완행택의 주체성은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려는 주체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탈주하려는 주체의 공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 이성중심주의와 남근 중심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에게 개인적 가치는 없고 오직 현모양처, 일부종사, 삼종지도와 같은 전통적 여성성만이 최대의 가치로 부여된다. 따라서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은 ‘처녀’, ‘어머니’ 아니면 ‘창녀’이다.¹⁵⁾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회에 의해 규정되

14) 환상은 한마디로 ‘주체가 등장하는 상상적 각본’이다. 즉 환상은 주체가 연출하는 무대로 환상은 현실의 변형이다. 현실을 변형시키는 것은 욕망이다. 욕망은 환상을 통해 발현되고 환상은 욕망을 위장하는 옷과 같다.-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프로이트·라캉에서의 욕망과 환상론』, 현대문학, 2005, 236면 참조.

15) 박금주,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타자적 여성성 연구-강경애·백신애·최정희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0면 재인용.

고 강요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을 ‘물적 존재물’이라 하고 규정된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을 분자적 여성이라고 한다.¹⁶⁾ 완행택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된 역할과 진정한 자아 사이에서 분열을 앓는다. 완행택이 삶을 가능케 하고자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타율적으로 사는 것은 들뢰즈 식으로 보면 물적 존재물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허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딸 되기’¹⁷⁾는 ‘분자적 여성-되기’이다. 완행택은 ‘되기’로 하여 현실 속에서 보상을 받는다. 완행택의 ‘딸 되기’는 과거의 결핍을 보충하려는 욕망의 소산으로 새로운 세계, 환상의 공간으로 진입하여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견뎌가는 것이다.

완행택의 딸들은 기관 없는 신체¹⁸⁾와 같다. 완행택은 자신을 억압해

16) 들뢰즈와 가타리는 분자적 여성-되기와 물적 존재물로서의 여성을 구별한다. 그들이 ‘물적 존재물’이라 부르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대립시키는 이원적 기계’속에서 포착되고, 형태에 의해 한정되고 기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주체로 규정된 여성이다. 반대로 물적 존재물로서의 여성이 아닌, 분자적인 여성은 “신체를 기관들 없는 신체로 재구성하는 일, 신체의 비유기성을 재구성하는 일은 여성-되기 또는 분자적 여성의 생산과 뿔 수 없다”고 한다. 가부장제에서 살기 힘든 여성들에게 그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생성 방식을 제기해주고 있다. 조애리, 김진옥,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페미니즘 연구』, 16권1호, 2016, 265-284면 참조.

17) 들뢰즈에 의하면 “욕망은 기계이며 욕망의 대상 역시 연결된 기계이다.” 들뢰즈의 ‘되기’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다른 존재 및 ‘물질’을 ‘배치’한다.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욕망하기란 생산하기, 현실에서 생산하기”이다. ‘되기’는 욕망에 따라 지금의 자신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자신’을 생산한다. 클레어 콜브룩은 들뢰즈의 ‘되기’를 “생성하기 위해 상식과 고정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기존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되기’를 통해 이전과다른 자신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61-62면, 클레어 콜브룩, 한정현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24면.

18) 기관 없는 신체(중중 Co라고 약술됨)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또낸 아르또의 용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들뢰즈는 이 기관 없는 신체를 욕망의 “일관성의 구도” 혹은 “욕망의 내재성의 장”이라고 한다. 몸의 기관이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신체는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는 알에 비유된다. 마치 알과 같이 어떠한 기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알에 내재된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 신체의 분화가 이루어지며 기관들이 생성된다. 따라서 기관 없는 신체는 하나의

은 집에서 탈출을 꿈 꾸지만 정작 실현시키지는 못한다. 대신 완행택은 딸이라는 환상을 통해 욕망을 충족한다. 딸은 완행택의 환상이고 완행택의 욕망의 기계들¹⁹⁾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여성은 소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소수적인 것이 바로 되기 그 자체로 소수적인 것·되기는 다수적인 것이라고 제시되는 기준들을 의문시하고, 이를 다양한 차이들과 연결 접속하여 다수성을 구성하는 표준과 기준을 뒤흔드는 것²⁰⁾이다. 이 소설에서 보았을 때 완행택은 가부장제라는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 존속한다. 완행택의 ‘딸·되기’²¹⁾는 이러한 지배 구조로부터의 탈주를 의미한다. 하지만 완행택의 상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의 탈출은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앞에서 말한 가부장제의 견고함이 그 실패의 원인이 된다. 비록 현실에서의 탈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행택은 “딸”이라는 환상속의 자신을 만들어 매 번의 탈출을 성공케 만든다. 첫 번째 사연에서의 딸은 결혼을 강요하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 집을 나서고 두 번째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고자 집을 나선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에서의 딸은 남편이 다시 나를 찾아왔지만 거절한다. 즉 환상 속의 딸은 완행택이 실현치 못한 욕망을 이루게 한

잠재적인 장이다. 즉 욕망은 있으나 그것을 실현시킬 힘이 없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같은 책 2014, 34-44면 참조.

- 19) 가타리에 의하면 욕망하는 기계는 기관 없는 신체가 생산하는 방법으로 된다. 기관 없는 신체는 대상을 파편화하여 틀 지워진 제도 속에서 다양한 출구를 찾아 나서는 선들로 작동되며 이것을 욕망하는 기계로 지칭한다. -아르노 빌리니·로베르 싸소, 조정환 옮김, 『들뢰즈 개념어 사전』, 갈무리, 2012, 299-305면 참조.
- 20) ‘소수적(mineure)’이라는 말은 ‘다수적(majeur)’이란 말과 반대인데, 단지 수적으로 적고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척도로서 기능한다. 다수자 내지 다수성이란 척도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배적’, ‘주류적’으로 언제나 권력이 함축되어 있다. 소수적인 것은 지배적인 것, 다수적인 것, 즉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들뢰즈는 “되기는 소수적이며 모든 되기는 소수자·되기이다”라고 말한다.
- 21) 인간은 욕망으로 하여 ‘되기’를 실현하고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영토’를 가로지른다. 들뢰즈는 이 움직임을 ‘탈영토화’, ‘재영토화’라고 설명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같은 책, 100면.

다. 이러한 점은 아래의 본문 중에서 보아낼 수 있다.

요컨대 딸아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완행택 자신은 늘 부재 상태였다.

...중략...

그 딸아이의 이야기 중에 완행택이 그토록 철저하게 부재일 수가 없었다.(355)

그것은 한사코 딸아이가 가기 싫은 시집을 가지 않고 사전에 집을 뛰쳐나가버렸노라는 완행택의 엉뚱한 고집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이었다.(353)

완행택에게 결국 그녀의 진짜 딸이 없었다. 있는 것은 다만 자신의 소재와 실체를 송두리째 내주다시피 한 완행택의 소망과 망상이 있을 뿐이었다.(359-360)

들뢰즈는 인간이 ‘되기’를 통해 제도화된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들뢰즈는 이 세계를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식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영토’²²⁾로 비유한다. 즉 사회의 기정질서, 사회체계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영토’이다. 완행택의 ‘딸 되기’는 바로 이 ‘영토’에서의 탈출이다. 자신을 억압해 온 ‘영토’에서 벗어나야 만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완행택의 탈주는 최종적으로 광장에서 딸을 찾는 “나”로 된다. 즉 완행택은 “나”라는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억압해 온 ‘영토’로부터 영원히 탈영토화하는 탈주선²³⁾이 된 것이다. 이러

22) 위의 책, 245-248면.

23) 형식을 부여받은 질료인 실체는 영토성과 결부되어 있고 물리적 입자들과 화학적 실체들은 자기 지층 위에서 그리고 다른 지층들을 관통하면서 탈영토화의 문턱들을 가로지른다. 자기의 고유의 지층 위에서 하나의 유기체는 탈영토화된다. 탈영토화는 하나의 완전한 긍정적 역량이

한 탈출은 어떤 의미에서 타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완행택의 탈출은 부당한 기존의 관습, 제도, 규범에 항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부당한 아버지에 대한 항거와 남편에 대해 반발은 현실원칙을 수정하려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의 신경증은 사회적이다. 여기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흠 패인 공간을 떠올릴 수 있다. 흠 패인 공간이란 행동을 규제하는 벽, 울타리, 울타리 사이의 길들에 의해 ‘흠’이 파여진 공간이다. 사회 정치적 개념에서 볼 때 법, 규율, 지배 이데올로기 등은 ‘흠’으로 기능하며 사유와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완행택은 “딸-되기”의 과정을 거쳐 흠 패인 공간을 휩쓸고 매끈한 공간을 창조한다. 이 공간은 사회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 완행택은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유래한 정신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황과 상처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의 딸 찾기는 이러한 억압적인 체계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된다. 완행택의 행위를 지켜보는 광장의 사람들은 완행택을 통해 사회적인 억압을 확인하는 동시에 완행택의 정신적 분열을 인정해줌으로써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사람들이 광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완행택의 구원을 돕고자 한 것뿐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4. 삶의 희망, 그리고 ‘광장’

소설에서의 ‘광장’은 완행택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구원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아들이 나타난 뒤로 완행택의 거동은 “술개에 쫓기

다.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 탈영토화된 하나의 유기체는 자신의 내부 환경 위에서 반드시 재영토화된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101-102면.

는 병아리 꼴”이 된다. 완행택은 아들의 기미만 보이면 광장에서 사라졌다가 아들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딸을 찾으며 그 딸에 의지해서야 자신의 신세에 너그러워진다. 광장의 사람들은 완행택의 진실을 아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 후 완행택에게 진실을 묻는 자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는 없다. 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가부장제라는 견고한 체제에서 탈출을 꿈 꾸는 완행택은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광장은 분명히 그녀를 구원해줄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또 자아를 잃게 만드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완행택을 보면서 광장 사람 모두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광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청준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검열의 형태를 띤 강압적인 현실원칙에 의해 구획된 “말의 금역”때문에 불안에 떨며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러나 그 때문에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말들이 금기가 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환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말들이 절대적 금역 속에 갇혀 버리고 있다면, 그때는 그 말들이 금제된 바깥세상의 이야기를 대신 쓸 수 있었다.”²⁴⁾”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청준의 소설은 늘 말하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에둘러 얘기하거나 알레고리 서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의 알레고리 서사는 현실의 미시적 권력장치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시도²⁵⁾하는데 그것으로 진실이 오히려 분열자의 환상이나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반전은 충격을 가하게 된다.²⁶⁾ 『겨울광장』에서 완행택의 진실을 알게 된 광장사람들을 포함한 독자들에게도 충격을 준다. 그리고 그 진실을 추궁하였던 광장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진실에

24) 이청준, 『씹어지지 않은 자서전』, 중앙일보사, 1987, 13면.

25) 이근배는 『잔인한 도시』가 박정희 정권하의 억압당하는 자유를 새를 내세워 알레고리로 쓴 것이라 말하며 “이번엔 내놓고 ‘우화’라고 하면 검열에 무사할 리가 없었다. 나는 생각 끝에 이청준에 제목을 『새를 위한 악보』로 바꿔야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근배, 이청준 『스승의 혼신의 작가 정신을 담은 이상한 선물』, 『문학의 문학』, 동화, 2008, 33면.

26) 김남혁, 『알레고리와 자유』,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59-97면 참조.

대해 파헤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진실을 감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와 진실을 추궁하는 자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의 주체로 완행택과 함께 한다.

그래저래 완행택은 이제 어쨌거나 광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광장 주변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그 완행택의 소망을 부질없어하지도 않았다. 완행택에겐 이미 돌아와줄 딸이 없음을 알고들 있으면서도, 그리고 완행택이 그의 딸아이의 소식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게 될지를 어슴푸레 대략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완행택에게 그 딸아이를 믿어주고 싶어 했으며, 마치도 멀리 떠나간 자신들의 딸자식을 기다리듯 완행택과 함께 그녀의 딸아이 소식을 기다리게 되곤 하였다.(370)

이청준의 알레고리는 또한 긴급한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며 폭압적인 당대 현실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기법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퇴원』(1965)의 주인공은 외적 구속(아버지, 군대, 병원)으로부터 소극적 자유를 되찾고자 ‘자아망실증’을 앓고 있고 『조만득씨』(1980)의 주인공은 현실로부터 도피한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다. 두 작품만 놓고 볼 때 1960년대 이청준은 4.19의 주체인 ‘젊은 사자들’의 화력이 5.16의 억압적 질서에 갇혔다는 데 절망하지만 4.19가 보여준 자유는 다시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5.16이 만든 권력의 감옥이 벗어날 수 없을 만치 정교하고 미세하게 그물망처럼 되어 ‘병원’(감옥)밖의 현실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한 듯하다.²⁷⁾ 흥미로운 점은 억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가능케 한 『퇴원』에서의 공간이나 권력의 감옥으로 묘사된 『조만득씨』에서의 공간은 모두 병원이라는 점이다. 60년대의 작품인 『퇴원』에서는 소극적인 자유²⁸⁾를 가능케 했

27) 김남혁, 『환대와 자유』,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이이북스, 2015, 179면.

28) 같은 글.

던 병원이 80년대의 작품인 『조만득씨』에서는 자유가 불가능한 곳으로 치환된다. 70년대 말의 『겨울광장』에서는 『퇴원』과 『조만득씨』의 주인공 들처럼 억압적인 구속을 벗어나려고 광장을 찾는다. 그렇다면 왜 광장일까.

현대 한국사회에서 대중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광장’이 발견된 것은 4.19의 결과였다. 4.19이후 1년간 그 전후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데모의 홍수’를 경험한 것과, 같은 시기에 각종 매체에서 광장 담론이 의미론적 범람 현상을 드러낸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동시에 4.19는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그 정치적 정당성을 빼앗긴 ‘미완의 혁명’으로 남는다. 4.19에서 그 절정을 드러낸 ‘자유’에 대한 열정은 5.16 이후 ‘뺑’에 대한 추구²⁹⁾로 대체된다. 1960년 서울의 광장과 거리에 흘러 넘쳤던 집회와 시위의 물결은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잦아든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광장정치는 기나긴 침묵의 시대³⁰⁾로 접어들게 된다. 하여 ‘광장’은 더이상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표출이 불가능한 봉쇄된 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권력의 작용점으로 삼은 규율 권력의 장이었다.

그렇다면 『겨울광장』이라는 제목에서의 ‘겨울’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았

29) 김백영,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1950-60년대 서울의 도시 공간과 광장정치』, 『서강인문논총』,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18면.

30)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묵이라고 볼 수 없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1975년 이후의 수년간은 아무리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1978년 6월 26일의 경우처럼 서울 도심지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도, 신문이나 방송에는 단 한 줄, 단 한 마디의 보도가 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긴급조치에 위반되는 사실을 보도한 자는 그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유신체제의 성립은 대통령선거라는 대중정치 공간을 아예 없애 버렸고 새마을운동이라는 대중동원과 장발 단속이라는 대중통제가 등장했다. 대중정치의 실패는 쓰디쓴 원한을 남긴 것이다. 유신체제의 성립은 대통령선거라는 대중정치 공간을 아예 없애 버렸고 새마을운동이라는 대중동원과 장발 단속이라는 대중통제가 등장했다. 대중정치의 실패는 쓰디쓴 원한을 남긴 것이다. -권보드래, 김성환, 김원, 천정환, 황병주, 권력의 시선, 스크린을 지배하다,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상상, 2015, 60-72면 참조.

을 때 계절의 겨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유신 시대(1972~1980)는 폭압적인 통치로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 나머지 “겨울 공화국”³¹⁾으로 상징된다. 『겨울광장』의 겨울도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당시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청준 문학에서 폭력이라는 문제를 사유할 때 박정희 정권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2장에서는 이미 가부장제가 폭력으로 유지된다고 보았는데 박정희 정권시기, 정치세계의 근본을 가족적 질서의 확대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³²⁾로 삼으며 유신정권의 근거로 삼았던 동도서기론이 지향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남녀관과 연결³³⁾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적 국가기구와 사회체계는 정치적 구조로서 작동하며 그 상징적 가부장은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체제³⁴⁾이다. 가부장제로 인해 남성 중심이 된 광장을 이항대립의 중심부로 볼 때, 완행택은 그러한 이항대립의 중심부를 인정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다. 또한 가부장제의 억압을 받은 것은 단지 여성일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부의 민중으로 확대해석할

31) 양성우의 시 『겨울공화국』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로 하여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당시의 현실을 아무 생명도 자라날 수 없는 얼어붙은 ‘겨울공화국’이라고 풍자한다. 김경복,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과 민중시』, 『서정시학』 제27권 제2호, 계간 서정시학, 2017. 05, 191-193면 참조.

32) 1970년대 중반 충효 사상의 강조, 충효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사회구조를 전체적으로 가부장적, 봉건적 질서로 구조화시키려고 했고 이때 사회단체에 의해 효자상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여성의 가정적 역할은 강조되면서 기존의 성별분업은 더욱 정당화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성별노동분업을 고정시키고 이를 통해 남성 지배는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근대적 국가개발 정책은 성별분업에 기초하여 가족을 단위로 한 발전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가부장적 발전동원 체계는 여성들을 일차적으로 가정영역 내부의 존재로 인식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가정관리자로서 개발에 참여시켰다. -신현옥,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1960-70년대 마을부녀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33) 황혜진, 『1970년대 초 한국영화의 여성 재현: 사회적 콘텍스트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7권 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117-132면.

34) 강유진, 『손창섭 신문연재 소설의 가부장제 인식과 알레고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06면(201-228면).

수 있다. 그렇다면 『겨울광장』에서의 광장은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만의 사회이다.

주인공인 완행택의 이름도 역시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1977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1965년 이후 근대적 도시 시설의 증대가 현저했던 교통 발달로 인해 고차중심지 주변의 저차중심지들은 고차중심지에 고객을 박탈당해 쇠퇴하거나 폐쇄되었다.³⁵⁾ 한국의 1960-70년대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광범한 근로자에게 빈곤, 고통, 타락, 노예화를 강요하였다.³⁶⁾ 이 뿐만이 아니다. 유신정권 시기에는 군사 퍼레이드, 기능올림픽 수상자를 위한 카퍼레이드, 전국체전 매스게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리는 기념비 등 일상 영역에서도 대중에게 고통의 인내를 강요하는 기제들이 많았고³⁷⁾ 1970년대 후반에는 문화적인 정책으로 효도와 정절과 같은 “한민족 전통”을 날조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³⁸⁾ 완행택이라는 이름에는 박정희 집권 시기 고통의 인내를 강요 당한 사람들이 그 고통의 원인, 진실을 추궁하기보다 그것을 인내하고 감추어야 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은연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완행택은 끝까지 광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설사 권력의 시선에 “술개에 쫓기는 병아리 꼴”이 되더라도 말이다.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의 틀은 견고하기에 그 체제가 주는 억압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설에서 강압적인 권력을 고발하고 권력의 장으로 된 광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주인공

35) 권오혁, 『교통발달에 의한 중심지체계 변화 모형의 분석과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권 1호, 대한지리학회, 2016, 81면.

36) 채만수, 『프로파간다로서의 ‘박정희 근대화론’』, 『정세와 노동』, 제 68호, 2011, 162-178면.

37) 권보드래, 김성환, 김원, 천정환, 황병주, 권력의 시선, 스크린을 지배하다, 위의 책, 71쪽 재인용.

38) 박노자, 『독재자가 “한민족 전통”을 날조한다: 박정희의 “민족 중흥”』,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5, 166-171면 참조.

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하여 민중의 권리는 봉쇄된 이 광장에서 상처와 가해자를 밝히고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 시도하는 주인공을 보며 “모두가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광장의 사람들은 광장을 떠날 수 없었다. 그간 묵인되었던 그들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을 가능케 한 주인공으로부터 광장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탈출을 통한 자유지향의 모티프는 단지 『겨울광장』에서만 아니라 이청준의 다른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당신들의 천국』과 『소문의 벽』은 모두 환자의 ‘탈출’을 모티프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두 소설에서 환자가 병원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폭력적 사회와의 대응방식이다. 그들은 탈출을 통해 삶의 희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목포행』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설에서 육형의 수많은 죽음의 원인은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 육형의 죽음은 당대 사회가 사회정의라는 명목으로 슬한 개인의 욕망 내지 삶을 희생시키고 억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육형의 수많은 죽음은 목포라는 곳에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되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인공이 목포를 탈출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공은 ‘수가 틀리면 금방 어디론가 될 수 있는 탈출’을 할 수 있는 목포의 사람들을 삶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한다. 주인공에게 목포라는 곳은 ‘암울한 상실감도 씻어내고’ ‘실패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육형을 불사신으로 만든다. 주인공은 현실의 억압에서 탈출하여 삶의 희망을 얻고자 목포를 찾는다. 이청준의 작품세계에서 탈출을 모티프로 한 소설은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면서도 삶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겨울광장』에서의 광장은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민중의 바람을 함축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아직도 그 광장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1970년대는 강력한 국가권력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자본주의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저항도 강하게 발휘된 시기였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기 전까지 사회의 곳곳을 폭압적으로 통제했다. 1979년은 통치의 절정기였으며 『겨울광장』은 그해 2월에 발표된다. 『겨울광장』은 그간 이청준의 소설에서 여러 번 다뤄졌던 정신이상과 자기 실종을 여성이라는 인물에 맞춰 다뤄진다.

본고에서는 여성서사에 대한 의미에서 출발하여 소설 『겨울광장』에 내포된 의식을 알아보았다. 2장에서는 폭력으로 유지되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청준의 비판적인 인식을 알아보았고 3장에서는 완행택의 탈출을 부당한 기존의 관습, 제도, 규범에 항거하려는 노력으로 보면서 “딸 되기”의 과정을 거쳐 사회 정치적인 공간인 홈 패인 공간을 매끈한 공간으로 창조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완행택은 상처를 대함에 있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로 되어 희망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앞선 논의의 연장에서 광장의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청준의 『겨울광장』의 광장은 국가의 강력한 통치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의 광장이다. 5.16군사쿠데타로 4.19의 정치적 정당성을 탈취한 박정희의 정권시기, 광장은 더이상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표출이 불가능한 봉쇄된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권력의 작용점으로 삼은 규율 권력의 장이다. 그럼에도 주인공인 완행택은 광장에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가해자를 고발한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광장에서 상처를 안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인물을 통해 비인간적인 체제에 대한 고발과 빼앗긴 자유에 대한 바람을 적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은 당시 권위적인 정권에 대한 반발과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고발이며 민중들이 절망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바람을 함축하고 있다.

『겨울광장』에서는 여성은 단지 섹슈얼리티로서의 여성이 아닌 주변부로 밀려난 소외받은 민중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여태껏 논의된 이청준의 소설에서의 여성은 아들과의 관계로 의미를 가지는 ‘어머니’였다. 『겨울광장』에서의 여성은 독자적이며 그런 점에서 소설의 여성서사의 의미를 다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고는 이청준의 소설에서 여성서사가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의미화를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바이며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려고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청준, 『겨울광장』, 『문학사상』, 1979년 2월호.

이청준, 『눈길』, 문학과 지성사, 2012.

2. 국내 논저

강명규, 『이청준 소설 속 인물의 방어기제 연구: 「조만득 씨」, 「겨울광장」, 「황홀한 실종」, 「가면의 꿈」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강유진, 『손창섭 신문연재 소설의 가부장제 인식과 알레고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201-228면.

김경복,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과 민중시』, 『서정시학』 제27권 제2호, 계간 서정시학, 2017.05, 181-199면.

김남혁, 『알레고리와 자유』,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59-97면.

김남혁, 『환대와 자유』,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145-190면.

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 『꺼어질 수 없는 자서전』과 『소문의 벽』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독해를 바탕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0권 0호, 2016.10, 355-401면.

김백영,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1950~60년대 서울의 도시 공간과 광장정치』, 『서강인문논총』,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18면.

김우영, 『이청준 문학의 언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현, 『장인의 고뇌』,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369-380면.

권보드레, 김성환, 김원, 천정환, 황병주, 권력의 시선, 스크린을 지배하다,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60-72면.

권오혁, 『교통발달에 의한 중심지체계 변화 모형의 분석과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권 1호, 대한지리학회, 2016, 77-88면.

박금주,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타자적 여성성 연구-강경애·백신애·최정희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0면.

박노자, 『독재자가 “한민족 전통”을 날조한다: 박정희의 “민족 중흥”』,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5, 158-172면.

송인화 『196,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30권, 2013, 385-415면.

신현옥,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 마을부녀조직

- 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0.
- 우찬제, 『이청준(李清俊) 소설(小說)에 나타난 불안(不安)의식(意識)연구』, 『語文研究』 3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89-212면.
- 이근배, 이청준 『스승의 혼신의 작가 정신을 담은 이상한 선물』, 『문학의 문학』, 동화, 2008, 32-36면.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이상 연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17』, 2002, 347-367면.
- 이진경,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미시권력의 양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재선, 『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30-242면.
- 이청준, 『쏟아지지 않은 자서전』, 중앙일보사, 1987, 13면.
-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 프로이트·라캉에서의 욕망과 환상론』, 현대문학, 2005, 236면.
- 정현숙, 『의미화의 과정 : 부재에 의한 욕망의 담화』, 『오늘의 문예비평』, 지평, 1992, 110-126면.
- 조애리, 김진옥,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페미니즘 연구』, 16권 1호, 2016, 265-284면.
- 채만수, 『프로과간다로서의 '박정희 근대화론』, 『정세와노동』, 제 68호, 2011, 162-178면.
- 한상규, 『〈병신과 머저리〉에서 〈인간인〉까지 문학적 연대기: 멈추지 않는 자유의 현상학』, 『작가세계』, 세계사, 1992.08, 29-36면.
- 황혜진, 『1970년대 초 한국영화의 여성 재현: 사회적 콘텍스트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7권 17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117-132면.

3. 국외논저

- R.W. 코넬, 안상욱, 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44-45면.
- 마리아 미즈 지음,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109면.
- 존 베이넌, 임인숙, 김미영 옮김,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14-19면.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61-62면.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101-102면.
- 클레어 콜브룩, 한정헌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24면.

<Abstract>

The Square of Hope and Escape from Patriarchy

CUI YANJI

This article will focus on female scribes in the 『Winter Square』, a short novel by Lee Chung joon, and approached the social historical aspect of the 1970s to explain the meaning of short story and tries to grasp the writer's consciousness. From his first novel 『discharge』 in 1965, 『the unwritten Autobiography』(1969), into the 70's, 『Wall of Rumors』(1971), 『Mr. Cho Man deuk』(1976), 『A Wonderful Missing』(1979), and 『Winter Square』(1979), all of which are mentally ill. In the Lee's short story about 'Mental Abnormalities' before 『Winter Square』, the main character is mostly a male intellectual. However, while 『discharge』 and five other main characters are men, 『Winter Square』 deals with the mentality of the female lead.

In previous discussions, the characters of the short story, which deals with 'mental abnormalities', are characterized by childhood anxiety and personal experience of Lee Chung joon. However, the main character of 『Winter Square』 is a woman and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handle in the extension of the preceding discussion.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ocial historical aspect of the 1970s to explain its meaning and tries to grasp the writer's consciousness. This is also that previous discussions neglected.

And also, It is noteworthy that 『Winter Square』 published in the late 70s. During this period, the square was blocked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took power through the 5.16 military coup. 『Winter Square』 is reporting on this coercive power system and writing down the

hope that the oppressed people will regain their freedom. In that sense, the title 「Winter Square」 appears to be meaningful, and indicates that the main character is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gaining life's hope on his own at the square.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fantasy of main character based on Deleuze and Guattari. And then, tries to re-examine the critical perception of Lee Chung joon's patriarchy in keeping with the times of the 70s. Finally, this article hopes to explain what the square is like and what the symbolic meaning of it is.

Key words: Lee Chung joon, Square, Deleuze, Female, Minjung

투 고 일 : 2019년 8월 24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27일-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